

‘삼성과 함께 일하는 길’... 협력사 채용에 인산인해

Q 르포 |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가보니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임에도 협력사라는 이유로 취업준비생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사 앞에 ‘삼성’을 붙여서 관심을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SDI·전기·SDS와 함께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서 직장을 찾기 위해 방문한 조유현(27)씨의 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협력사 채용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협력사 89개를 포함해 총 120개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는 우수 인재 확보하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행사는 10시로 예정된 입장 시간 전부터 몰려든 구직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조 씨는 “원래는 면접을 보러온 건데 기업 사정으로 상담으로 바뀌었지만 채용담당자가 취업과 관련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120개 기업의 부스가 차려진 박람회장은 이력서를 들고 분주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무는 크게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경영

120개 협력사 참여... 열기 ‘후끈’ 현장면접에 당일 즉시채용 기업도 취업컨설턴트 면접 컨설팅도 제공 김현석 사장 “상생협력 강화할 것”

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로 나뉘었다.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면접을 볼 수 있다.

삼성엔 사전 신청을 통해 면접자를 받았지만 이력서를 준비해온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는 현장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면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력서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됐다. 삼성오오 모여 면접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부스에서는 각 업체들이 구직자와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몇몇 업체는 면접 대기자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면접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 면접을 보는 사람 바로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기하는 사람들은 준비해온 1분 자기소개를 외우고, 심호흡을 하는 등 면접 준비에 한창이었다.

15분 가량의 면접을 마치고 나온 임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가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피에스케이’ 부스에서 채용 면접을 보고 있다. 이 자리를 찾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왼쪽)과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면접을 보는 구직자(가운데)를 응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27)모 씨는 “여기는 박람회장이어서 그런지 일반 기업 면접 환경과 다르게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됐다”며 “할 말을 다 못하고 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채용한마당에서 다양하게 면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최(29)모 씨는 “협력사에 취업하면 삼성에서 삼성 임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준다고 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협력사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사업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환영사 이후 부스를 찾아 면접을 보는 구직자를 응원하기도 했다.

협력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H사의 채용담당자 진(37)모 씨는 “많은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채용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업체에게는 구직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오늘 현장에서 1차 면접을 진행했고 추후에 별도의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온 다른 업체 중에는 오늘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는 손유경(18) 양은 “2시에 기술직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박람회장에서 보는 면접은 처음이라 떨리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유경(18) 학생도 “정장을 차려입은 성인들이 많은데 우리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긴장된다”며 “오늘 1차 면접 후에 2차 면접 일정은 개별적으로 연락 온다고 들었는데 면접을 잘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토탈솔루션관’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경력컨설팅센터 소속의 임직원 컨설턴트 20여명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현장 기업 매칭까지 취업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협력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에도 신입사원 교육과 기술·품질 관리교육 등 전문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협력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세종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세종대 공개특강 ‘사회복지실천과 호스피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하고 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 사회복지학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공개특강이 17일 세종대 광개토관 103호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특강은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김민정 박사가 연사로 나와 강연하고 워크숍 형식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김 박사는 서울아산병원의료사회복지팀을 이끌고 있으며 해결중심치료학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전문가 슈퍼바이저,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 상담 전문가와 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이다.



상명대 글로벌 해외봉사단이 내달 26일부터 진행될 라오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에 참여했다. /상명대학교

상명대 라오스 해외봉사단 라오스 봉사활동 사전교육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0일~11일까지 이틀간 충남 대천에 위치한 상명수련원에서 ‘2018년 동계 글로벌 해외(라오스) 봉사단 국내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학생 30명과 인솔자 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내달 26일 라오스 우돔사이에 도착해 내년 1월 8일까지 교사신축과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출국 전까지 진행되는 3차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이다. /한용수 기자 hys@

디지털기기는 불허... 아날로그시계 허용

수능 D-2... 유의사항

내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수령·시험장 위치 확인해야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고, 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당일 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송이 시작됐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관됐다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일인 15일 오전 1190개 시험장으로 다시 이송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14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SKT, 협력사-청년구직자 교두보 마련

협력사 채용 박람회 개최

SK텔레콤이 우수 인재가 필요한 협력사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이어주기 위해 나섰다.

SK텔레콤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서울 중구 SK 남산 그린빌딩 20층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에서 자사 우수 협력사를 위한 첫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엑스투, 비디, 미디어브레인 등 SK텔레콤 우수협력사 17개가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전략기획·재무·소프트웨어 개발·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채용 박람회

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협력사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SK 남산 그린빌딩 20층에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를 개관한다. SK텔레콤 동반성장센터는 SK그룹 공유인프라 활동의 일환으로 SK텔레콤 협력사 임직원들이 교육, 세미나, 회의의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백 채용문화 바꾼다... ‘마음 편한 면접장’

롯데백화점이 기업문화 개선을 넘어 채용 및 면접 문화 바꾸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하반기 채용부터 경직되고 딱딱한 면접 분위기를 타파하고 지원자들을 배려한 면접 환경을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면접장’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채용 환경 변화를 선보이는 것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요하고 지원자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원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면접장’은 롯데백화점이 분당점 내 운영 중인 가드닝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렌,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총 241명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3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이 때 수험생은 시험시간 별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용수 기자

브런치 카페인 ‘소공원’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이는 최상의 면접 환경으로, 과거 딱딱하고 경직된 면접 분위기가 아닌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대 기장을 운영한다.

또한, 도심 속 작은 정원이라는 ‘소공원’의 테마에 맞게 각종 푸른 식물들로 면접장을 풍성하게 꾸며 긴장되는 면접 순간에도 지원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케이터링 업체를 활용해 면접 기간 동안 따뜻한 차 등 ‘긴장이완 음료’ 및 ‘브런치’ 등 다양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선진 기자 tree6834@